

통신3사 '통화 녹음' 기능 차별화... 아이폰 고객 잡는다

LG유플러스 4분기 '익시오' 출격
"통화 영역에 AI 적용 차별화 경험"

SK텔레콤 '에이닷' 업데이트
누적 가입자수 460만명 기록

KT 아이폰 통화녹음 검토중
'랑톡'서 AI통화리포트 기능

이동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기반 통화 녹음 서비스를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앞서 SKT가 통화 녹음 서비스를 가장 먼저 선보이면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데 성공하자 경쟁사들도 고객 유치를 위해 잇따라 뛰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내달 공개되는 아이폰 16에도 통화 녹음 기능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도 전달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반쪽 짜리 기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통신사들은 자사 통화 녹음 기능을 도입해 아이폰 이용자들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4분기 아이폰 통화 녹음이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 '익시오'를 선보일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2분기 실적발표 컨퍼

런스콜에서 "아이폰 통화녹음 서비스 '익시오'를 올 4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며 "통화 영역에 AI(인공지능) 적용해 차별화된 통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교사용 통화녹음 서비스 '랑톡'.



/KT

익시오는 LG유플러스의 자체 AI 기술을 활용한다. LG AI 연구원의 거대 언어모델(LLM) 엑시원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가 통신과 자체 데이터를 학습시킨 소형언어모델(sLLM)이다. 통신 부문에 특화됐기 때문에 LLM보다 가볍고 모바일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LG유플러스가 통화 녹음 기능을 도입하기로 한 데는 SKT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통신 3사 가운데 아이폰 통화녹음 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한 회사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자사 고객 대상으로 AI 비서 앱 '에이닷'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통화녹음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SKT는 에이닷을 통해 가입자를 끌어오는데 성공했다. 에이닷은 3일 연속 애플 앱스토어 1위(한국 기준)를 기록했다. 또 에이닷의 누적가입자수는 지난해 9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 뒤 올

해 6월 기준 460만명을 기록했다.

KT의 아이폰 통화 녹음 서비스는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T는 올해 초부터 교사가 개인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학부모와 통화하는 서비스 '랑톡'에 통화 녹음과 파일 생성 등을 해주는 'AI 통화리포트' 기능을 추가 제공했다.

이처럼 통화녹음 기능이 주목 받는 이유는 아이폰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는 통화 녹음이 가능하지만 아이폰에서는 해당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애플은 내달 공개되는 아이폰 16에 통화녹음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은 통화녹음을 시작하면 그 사실이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통신사들은 외부 아이폰 통화 녹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통화녹음으로 아이폰 구매 수요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세계 최초 10나노급 6세대 D램 DDR5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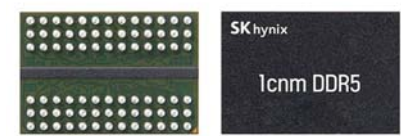


연내 양산 준비, 내년부터 제품 공급
이전세대 대비 생산성 30% 이상 향상

SK하이닉스가 지난 29일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1c 미세공정을 적용한 16Gb DDR5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내 양산 준비를 마치고 내년 부터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1b D램의 플랫폼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1c를 개발했다. 공정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1b의 강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1c로 옮겨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UV 특정 공정에 신소재를 개발 적용하고, 전체 공정 중 EUV 적용 공정



10나노급 6세대 1c 미세공정을 적용한 16Gb DDR5 D램 /SK 하이닉스

최적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설계 기술 혁신도 병행해 이전 세대인 1b 대비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켰다. 또 EUV 특정 공정에 신소재를 개발 적용하고, 전체 공정 중 1EUV 적용 공정 최적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설계 기술 혁신도 병행해 이전 세대인 1b 대비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켰다.

EUV(extreme ultraviolet) 공정은 중요한 과정인 포토공정에서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는 리소그래피(e

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기술 또는 활용한 제조공정을 뜻한다.

고성능 데이터센터에 주로 활용될 1c DDR5의 동작속도는 8Gbps(초당 8기가비트)로, 이전 세대 대비 11% 빠르며 전력 효율은 9% 이상 개선됐다.

1c D램을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면 전력 비용을 이전보다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 김중환 부사장(DRAM 개발담당)은 "최고의 성능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충족시킨 1c 기술을 차세대 HBM*, LPDDR6*, GDDR7* 등 최첨단 D램 주력 제품군에 적용하면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D램 시장 리더십을 지키면서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AI 메모리 솔루션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고려대, 굴절률 10 초과 메타표면 개발

콜로이드 자가조립 기술 활용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이승우 KU-KIST융합대학원·공과대학 융합 에너지공학과 교수팀이 콜로이드 자가조립 기술을 활용해, 굴절률 10을 초과하는 새로운 형태의 메타 표면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7월 31일 국제 학술지 스몰(Small, Impact Factor: 13)에 논문명 '콜로이드 자기 조립에 의한 광학굴절률 10- 이상 달성(Achieving Optical Refractive Index of 10- Plus by Colloidal Self-Assembly)'으로 출판됐다.

굴절률은 빛이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물리적 개념

중 하나이다. 굴절률이 높을수록 안경 렌즈를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정밀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도 높은 굴절률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굴절률의 한계는 4정도밖에 안 된다.

이에 이승우 교수 연구팀은 메타 표면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이 기술은 특수한 고분자를 이용해 나노입자들 사이의 간격을 매우 정밀하게 조절해 굴절률을 높인다. 이를 통해 기존 소재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굴절률을 구현할 수 있다.

기존의 자가조립 기술은 나노입자들 간의 간격을 정확하게 조절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현진 기자 hj@

LG유플러스-SM엔터 버추얼 아티스트 제작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 인공지능(AI)인 '익시젠(ixi-GEN)'을 기반으로 버추얼 아티스트 만든다.

LG유플러스는 SM엔터테인먼트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 생성형 AI '익시젠'을 활용해 SM의 첫 번째 버추얼 아티스트 '나 이비스'의 콘텐츠를 제작한다.

SM은 버추얼 아티스트에 AI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장르를 만들고, LG유플러스는 익시젠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마케팅과 브랜드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구남영 기자

"우버, 현대차·네이버와 택시사업 확대"

다라 코스로사히 CEO, 기자간담회

세계적인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가 국내 택시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종합 IT 기업 네이버 관계자를 만나 전동화와 자율주행 부문에서 협력에 나서고 있다.

우버의 다라 코스로사히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의 한국에서의 택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스로사히 CEO는 "우버는 한국에 진출한 지 10년이 넘었으며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며 "한국에서 우버 택시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100% 노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전체 택시 기사 중 약 20%가 우버를 이용하고 있다"며 "우버 택시는 파트너십에 지속해 투자하고 지역 택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 한국을 찾은 코스로사히 CEO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코스로사히 CEO는 이날 최



처음 한국을 방문한 다라 코스로사히 우버 최고경영자(CEO)가 8월 30일 더플라자호텔에서 미래 전략과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우버

수연 네이버 대표와 현대차 임원 등을 잇달아 만나 자율주행 협업 가능성도 모색했다. 현대차그룹과 우버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28일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자율주행 차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양성운 기자 ysw@

에쓰오일, 친환경 항공유 'SAF' 첫 도입

인천-도쿄 대한항공 여객기에 공급

에쓰오일이 차세대 친환경 항공유인 지속가능항공유(SAF) 시대를 열었다.

에쓰오일은 인천공항-도쿄 하네다 공항을 정기 운항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SAF를 주 1회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상용운항 정기선 여객기에 국내 생산 SAF를 공급하는 것은 사상 최초다.

지난 8월 30일 에쓰오일은 산업통상

자원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산 지속가능 항공유(SAF) 상용운항 첫 취항식을 개최했다.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SAF를 정기 국제선 운항에 첫 도입하는 뜻깊은 자리를 기념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항공분야 탄소배출 감소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표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